

특 집 | 우리는 이런 도서관을 꿈꾼다

도서관에 대한 타는 목마름

어린 시절 한글을 깨치면서 가장 먼저 읽기 시작한 책은 아마 만화책이었을 것이다. 학교를 마치면 동전 몇 닢을 손에 쥐고 쪼르르 만화가게에 가서 삼매경에 빠졌다가 어두컴컴할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한번 만화가게에 갔다 하면 앉은 자리에서 20권 정도는 간단히 독파하곤 했다. ‘불량도서’가 잔뜩 쌓인 만화가게를 기웃거린 배경이야 뻔하다. 내 나이 또래들은 다들 공감하겠지만, 내가 초등학교(당시에는 국민학교)에 다니던 1960년대에는 읽을 책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어린 시절 추억을 되새길 요량으로 에리히 케스트너의 어린이 소설 『에밀과 탐정들』을 구입해서 다시 읽었다. 초등학교 시절 만화가게에서 빌려 읽었던 소설책이었다. 이 책이 기억에 강하게 남은 이유는 아마도 내가 처음으로 만화가게에서 빌려본 소설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도시인 베를린에 기차를 타고 놀러갔던 시골 소년 에밀이 소매치기를 당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가 새로 사귄 도시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도둑을 잡는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만화가게에서는 만화만 본 것이 아니었다. 궁핍한 시절, 적어도 내게 만화가게는 책읽기 습관을 갖게 해준 고마운 ‘동네 유료도서관’이었다.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동네의 공립도서관이었다”고 말했다. 내게는 동네 만화방이 도서관 구실을 한 셈이다.

*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clio53@hanmail.net



박 상 악*

나이 들어 돌이켜 보니 이렇듯 정신세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도서관’을, 어른들 몰래, 마치 나쁜 짓이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드나들어야만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독서 같은 마땅히 장려되어야 할 건전한 취미생활을 슬금슬금 눈치 보며 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 그것은 필경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나 같은 ‘불행한(?) 어린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작 우리나라 도서관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안타깝기만 하다.

국내에서 대학원에 다니던 1980년대 초의 일이다. 논문을 준비할 무렵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 입수 문제였다. 막상 자료를 입수하려다보니 해결할 수 없는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다. 전공이 서양사이고 보니 직접 외국에 나가 자료를 수집하는 편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지만, 당시의 형편으로는 외국 나들이란 꿈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궁리해낸 방안이, 일단 국내에서 입수가 가능한 것은 모조리 구해보자는 것이었다. 가방에는 항상 빼곡히 적힌 자료 목록이 들어 있었고, 서울 시내의 주요 대학 도서관들을 샅샅이 훑어가면서 자료 사냥을 하게 되었다. 서울 시내의 주요 대학 도서관들을 발이 붓도록 드나드는, 그야말로 ‘자료 찾아 삼만 리’의 고행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원하는 책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수많은 도서관들을 이 잡듯이 다 뒤지고 다녀도, 필요로 하는 자료의 30퍼센트 정도밖에 구할 수 없었다. 요컨대 국내 대학 도서관들의 소장 도서만 가지고 고서는 논문 한 편도 쓸 수 없는 기막힌 한국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료 입수에 애를 태우던 어느 날 뜻밖의 기쁜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간절히 자료를 찾아 헤매다 덕수궁 옆 영국문화원을 찾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런던의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 소장 자료를 우리나라로 직접 ‘대출’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로서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책 한 권마다 만 원 조금 넘는 수수료가 붙었고, 여기에 별도로 항공 우송요금이 추가되었다. 우송료는 책의 무게에 따라 달랐지만 권당 약 만 원가량이었다. 대출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신청한 후 3주 정도면 책을 받아볼 수 있었고 대출 기간은 한 달이었다. 빌려볼 책이 한 두 권이 아니었기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지만 원하는

자료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영국문화원에서 빌린 책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 여기저기에 찍힌 도서관 스탬프를 보니 영국국가도서관 소장 도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글래스고 대학, 에든버러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등 여러 대학도서관의 장서들이 보였다. 알고 보니 1980년대 초에 영국은 이미 국내 모든 공공도서관 상호간 온라인망이 완비되어 있어서, 영국국가도서관에 없는 도서는 영국 내의 다른 도서관들을 검색해서 그 책을 대신 빌려 지구 반대편 한국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영국 국내의 도서관들 중 어느 곳인가에 소장되어 있기만 하면 어떤 자료라도 한국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자료에 굶주리던 나로서는 실로 환상적인 서비스가 아닐 수 없었다.

세월은 흘렀다. 몇 해 전 영국문화원을 다시 들렀다가, 영국국립도서관 도서 대출 서비스가 오래 전에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암울했던 1980년대 그 시절이나 21세기에 접어든 지금이나, 우리의 대학도서관들은 여전히 구해볼 수 없는 책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점에서 달라진 게 없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www.riss4u.net)가 제공되어 국내 대학 소장도서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지만, 타 대학 도서관 장서를 편안히 앉아 받아보는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고, 특히 자료의 질과 양에서 연구자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 사이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우리의 도서관 인프라는 아직도 연구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료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고 학술 연구에 필요한 양질의 책들을 신속하게 구해볼 수 있는 도서관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